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⑬

규원사화

(지난호에 이어)
高句麗之亡, 徙居營州, 及看蓋榮之亂, 與乞乞比力, 領家東遷, 麗輾之衆, 嚮德而起, 蓋其舊國宿將, 如百濟之黑齒常之, 明矣; 其麾下, 想多舊國貴臣, 能通古今者.(이하생략)

《신당서·발해전》에 따르면 [고려의 옛 땅을 서경으로 삼아 압록부(鴨 府)로 이름하고 신(神)·환(桓)·풍(豊)·정(正)의 4주를 거느리게 하였도라 하였으며, 《요사·리지》에는 [녹주(州)의 압록군(鴨 軍)은 절도(節度)이다. 본래 고려의 옛 국토로서 발해가 서경압록부라 불렀다. 모두 신(神)·환(桓)·풍(豊)·정(正) 등 4주의 일을 감독한다. 옛 현인 신록(神鹿)·신화(神化)·기수(淇水) 등 세 군데는 모두 폐지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환주(桓州)는 고려의 중도성(中都城)이며 옛 현인 환도(桓都)·신향(神鄉)·기수(淇水) 등 세 군데는 모두 폐지하였다]고 하였다.

무릇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 훗날 그 지역을 다스렸고, 고구려는 다시 부여로부터 나왔으니, 곧 발해의 세대에 아직까지 옛 역사가 전해지는 것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평양이 이적(李勣)에게 패하여 궁궐이며 곳간이 남김없이 불타 버리고, 게다가 공경대부며 명문 세족들은 포로로 잡혀갔기에 역사 서적 역시 재가림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인데 발해가 어떻게 그 역사를 전할 수 있었겠는 가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발해의 고왕은 바로 옛 고구려의 장수이다. 고구려가 망하자 영주(營州)로 옮겨 거처하다가 신영(蓋榮)의 난을 보고 걸사비유(乞乞比羽)와 함께 무리를 영도하여 동쪽으로 돌아오니 고구려와 말갈

의 무리들이 이에 호응하여 일어났다. 대저 이들은 옛 나라의 노련한 장수들로 마치 백제의 흑치상지와 같음이 분명하니, 생각건대 그 휘하에는 옛 나라의 신하였던 자로서 능히 고금의 일에 널리 통하는 자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고구려가 망한 후로부터 고왕이 일어시기까지의 사이는 겨우 27.8년의 일이니 옛 역사가 능히 전해진 것이 없었겠는가.

또한 문장의 흐름을 보아 말하더라도 곧 신주(神州)가 마땅히 발해의 서경이 있는 압록부 땅이며, 신주(神州)나 환주(桓州) 등의 이름 또한 신시(神市)나 환검(桓檢) 등의 글자에 가까운 바가 있다. 향차 신시씨와 환검신인을 사랍들마다 모두 한 사람으로 여기더니 지금은 모든 세상이 거의 다 그렇게 여긴다. 신주에는 그에 속한 현으로 신화(神化)와 신록(神鹿) 등의 땅이 있고, 환주에는 그에 속한 현으로 또 환도(桓都)와 신향(神鄉) 및 기수(淇水) 등의 이름이 있다. 환도(桓都)는 아마도 고구려의 환도(丸都)일 것이다. '환도(丸都)'라는 이름은 《위지(魏志)》나 《북사(北史)》 등의 책에도 이미 나오는데, 곧 '환'이 '丸'의 잘못 된 표기 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발해에서는 이미 환주(桓州)와 환도(桓都)로 이름을 바로 잡아 놓았으니,

이는 아마도 오랜 옛날을 그리는 뜻에 그 근원을 두었으리라. '신향'이라 함은 곧 신시씨에게 의지하며 살던 마을이라는 뜻이 있으며, '신화'라 함은 곧 신인의 교화를 말하는 것이다. '신록'의 명칭은 더욱 기이하다. 향차 예로부터 환검(桓檢)을 일컬어 신인(神人)이라 하였으니, 곧 '神'·'桓' 등의 이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기수(淇水)는 《원일통지(元一統志)》에 패수(淇水)로 되어 있으며,



一沙權正孝 옮김

또 앞에서 서술한 '패수의 북쪽'이라는 예기와 압암리에 부합한다. 한나라 서적에 의거하면 패수와 평양을 말한 것이 자못 맞으나 지금 다 말할 수는 없다. 신주·환주·신화·신록·환도·신향·패수 등의 이름은 이미 단군의 옛 일들과 많이 부합되니, 곧 단군의 두번째 도읍인 평양은 압록강의 북쪽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且《三國史記》, 高句麗琉璃王二十一年, 薛文兒王曰: [臣逐家至懸珊岩, 見其山水深險, 地宜五穀, 又多 鹿魚鯿之產, 王若移都, 則不惟民利之無窮, 又可免兵革之患……]云云. 故明年冬十月, 王遷都國內, 則其地, 非但山水險阻, 原野開闢, 亦可知, 適於耕農矣. 夫古者建都, 必取險固富及交通之便. 今平壤 松京 蕩曠之地, 莫不皆然, 長安 洛陽, 恒爲漢土建都之地, 亦此故也. 然則, 檀君之世, 民物漸繁, 交通愈繁, 且耕農之業, 逐漸而興, 則其捨棄木之地, 而南遷於淇水之濱, 以圖後日之隆運, 蓋可想見矣.

또한 《삼국사기》의 고구려 유리왕 21년에 설지(薛文)가 왕을 뵈고 아뢰기를 [신이 회생(纓生)인 돼지를 쫓아 위나암(懸珊岩)에 이르렀더니, 그 곳은 산과 물이 깊고 험하며 땅은 오곡을 재배하기에 적합하고 또한 순록과 물고기 및 자라 등 산물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왕께서 만일 그 곳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면 단일 백성들의 복리가 무궁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걱정 또한 면할 수 있을 것임니다]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槐雲 칼럼

花陰公과 岳堅山城

화음공 약견산성

槐雲 權海兆 (倭射公派, 三槐堂宗中)



화음(花陰)공은 북야공 삼괴당(三槐堂)공과 23세손으로 휘(諱)는 양(養)이요, 자는 경지(景止), 호가 화음(花陰)이다. 호 조정랑 휘(諱) 일(逸)이 조고(祖考)요,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 휘(諱) 여겸(汝謙)이 선고(先考)로, 1555년(명종 10년)에 삼가 대령(현 대령면 죽전마을) 출생하여 1618년(광해 10년)에 64세로 고종(考終)하였다. 삼괴당공과 세보에 의하면 호령으로 별제(別提)와 임진장의(壬辰倡義)의 공으로 장수, 현풍현감을 지냈고 운명 사흘 뒤 성주목사 제수 교지를 받았다. 합천 임란사(壬亂史)에 의하면 공은 어릴 때부터 총명 비범하고 효행이 출중하여 향촌의 모범이 되었고, 옥계(玉溪) 노진(盧震) 문하에서 수업한 다음 내암(來庵) 정인홍 선생문하에 입문하여 공부 하다가 입난 중에 의병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입난 당시 약견산성의 축성과 왜군을 무찌르는데 공이 지대하였다.

약견산성(岳堅山城)은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城里)에 있다. 약견산은 해발 492미터로 정상이 도봉산 같이 험준한 바위절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삼국시대의 입진왜란 때 격전지였다. 산성전면은 넓은 분지로 되어있으며 중심마을이 대밭골(竹田)이다. 옛날에는 대나무가 많아 화살을 만드는 고을로 시죽촌(矢竹村)으로 불렸다.

약견산성에 대해 역사기록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고려서에 약간 언급이 있어 신라와 백제가 싸웠던 대야성(大耶城) 전투와 연관된 것 같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에는 사명대사 유정(惟政), 망우당 객재우(郭再祐), 약봉 서성(徐澄) 등이 기록되어있고, 삼가읍지, 합천군사에는 일신정 공의 손자인 23세손 권양(養), 권해(漸) 형제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조정의 근왕문(勤王文)과 스승 휴정(休靜)의 격문을 받고 승병을 모았으며, 산성 축성에 관심을 가지고 합천 아로면 소재 이승산성(李崇山城)과 함께 약견산성을 보수하였다. 망우당(望雲堂) 객재우 장군도 입진왜란 때 성주목사를 하면서 약견산성 등 성지(城址) 수축에 열중하였고, 서거정의 현손 약봉(藥峯)도 입진왜란 당시 경상우도감사로 약견산성을 수리하고 민심을 진정시켰다.

삼가읍지 훈공조(勳功條)에 의하면 권양(養)은 입진왜란 당시 형인 해(漸)와 같이 창의(倡義)하여 약견산성을 방어하여 왜적을 무찌른 공이 많아 목사의 벼슬을 하였다. 합천군사(陝川郡史) 인물과 성씨 난, 효행 권에 보면 권양의 호는 화음이요, 예빈별제(禮賓別提)를 제수하였

그를 돕던 모용발이 죽자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모용희는 일반 백성들이 입는 미복(微服)으로 갈아입고 숲에 숨어 있었지만 그릇으로 뵈임은 아니었다. 결국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붙잡혀서 모용운에게 보내졌다. 물론 모용운은 원래의 성인 고(高)씨로 성을 회복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모용운은 모용희를 데려다 놓고 그의 죄상을 열거하고 그를 죽였다. 자기 처를 끄떡이 아낀 것인지, 아니면 바보인지 분간이 안가지만 이성이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요즘에도 사랑이상주의를 부르짖는 젊은이들이 꽤 많다. 자기 처를 끄떡이 아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도 최소한의 이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모용희의 못난 황후 아끼기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위진 남북조 시대에 모용씨라는 부족은 자기들이 세운 연(燕, 전연) 나라를 멸망시켰던 전진이 망하자 다시 연나라를 부흥시켰는데, 보통 후연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후연은 오랜만에 다시 나라를 세웠으니 모용씨가 단결하여 강한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멸망하는데 이르지 말 준비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그 후에 남연과 북연, 후연이 나뉘고 서로 다투었다. 모용씨끼리 권력다툼을 한 것이다. 큰 것을 버리고 작은 이익에 집착한 셈이다.

이러한 사사로움에 매몰된 것은 그것 뿐이 아니었다. 후연에서는 황제 모용희가 들어섰는데 특히 황후 부씨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지 해주고자 하였다. 아마도 왕조를 책임진 황제가 왕조보다 그 황후를 더 사랑했던 것 같다.

한번은 이웃하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요동성을 함락시켰다. 그런데, 장병들에게 요동성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황후 부(苻)씨와 연(燕)을 타고 같이 가겠다는 것이었다. 아끼는 황후에게 멋있는 장면을 보여 주고 싶었을 게다. 그러나 그것은 전장(戰場)에서 벌인 어처구니없는 명령이었다. 그 덕분에 고구려는 다시 방어 준비를 해서 다 함락된 요동성은 무사할 수가 있었다. 모용희는 또 황후 부씨를 위하여 승화

전(承華殿)이라는 큰 전각 짓게 하였는데, 흙을 등짐으로 져다가 산을 만들려고 하니 흙 값이 곡식 값과 같게 되었다. 나라를 팔아 황후의 환심을 사려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 물론 이를 말하는 신하가 있었지만 바로 목을 베어 죽였다.

한번은 황후 부씨(苻氏)가 늦어짐에 언생선을 먹고 싶어 하였다. 요즈음에야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런 것쯤이야 서민이라도 가능하지만 이 시절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모용희는 언 생선을 구해 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를 구해 오지 못한 것은 뻔한 일, 모용희는 그 책임을 물어 관리의 목을 베었다.

하여간 모용희가 이렇게 끄떡이 아끼는 황후 부씨가 죽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황제 모용희는 통곡하다가 울분으로 혼절하였는데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소생하였다. 그녀를 장사지내면서는 마치 부모가 죽은 것 같이 하여 참회(斬衰)의 복장을 하고 죽을 먹었다. 모용희의 행동은 황후를 위하여 왕조를 팔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러하니 그를 내 쫓으려는 사람이 있



마포종친회 8월 월례회 안내

회원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8월 월례회」(정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8월 22일(목) 오후 7시 (매월 4번째주 목요일)
- 장 소 : 우기촌(가미술실링탈) : 02)702-5047, 011-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공덕역 ⑤번출구 지하철 6호선 공덕역 ⑥번출구 → 공덕역거리 →내삼스타워(앞)→공덕지구대(파출소)뒤 →우기촌(실링탈)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 02)718-8437, 017-271-8437
- 총 무 권일부 : 02)714-4500, 010-3796-6980

2013년 8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행복한 결혼을 찾아주는

하나 결혼정보



소장 권경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삼재리제2단지 A동 1706호 (지하철 2호선 분당선 선릉역 ①번 출구)

- 상담전화 : (02)501-1177
- FAX : (02)508-5285
- H·P : 010-3203-3555
- 직책 : (031)794-0980
- E-mail : hm1003@hanmail.net

권문(權門)의 자녀 결혼상담을 언제든 환영하며 성실성이것 우대하겠습니다.



여 구속되어 있다. 기반부(基端部)는 신탁(伸琢)하고 상당부는 협축 했는데 협축 부분은 일부 도괴된 상태다. 축소수법이 조선시대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양호한 석축 높이는 평균 3미터로서 당시 선조들의 석조기술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약견산성은 1988년 8월9일 합천군 문화재 217호로 지정되었다.

필자는 유년시절에 어른들로부터 약견산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는 들었다. 그러나 현대적 군사 식견을 겸비한 장군으로 전역한 지금에 생각해보니 비록 변방이긴 하지만 중요한 군사요충지다. 웅장한 약견산은 뒷면 향강(香江)이 흘러 배수진이 용이하고, 남쪽 허굴산(虛窟山: 해발 681m), 서쪽 금성산(592m)과 삼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300미터 이상 고지대 분지인 들짜은 식량조달과 보급기지로 활용이 충분하다. 6.25전쟁 때에도 1950년 7월 25일 밤 약견산과 금성산의 연결지역인 여순목 일대 고지 길목에 미군 1개 대대병력이 전자와 화포를 배치하여 북한군을 도주시킨바가 있다.

최근 약견산성 유적 하단에 합천담이 건설되고 그 옆에 입란 창의기념관(任亂倡義記念館)이 건립되었다. 기념관 건립에는 당시 합천지역 국회의원이었던 권해우(36대선) 축영의 역할이 컸다. 기념관에는 입란 당시 합천 지역에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110위의 순국 영령들이 모셔져 있다. 우리는 여기서 400여 년 전 일본과 싸웠던 역사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한 일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권양, 권해 우리 선조들이 용감히 싸워 공적을 세웠던 약견산성이 새로 건립된 입난 창의기념관과 더불어 불후의 성역으로 가꾸어 후손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역사의 산교육장이 되길 기대한다.

부음

권성철 용마산업(주)회장 별세

중앙총친회 부회장으로 다년간 연임되면서 오문 문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권성철씨(權聖哲·경교공과사직 공계 32세·용마산업(주) 회장)가 지난 6월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성품이 온화, 다정다감했던 성철옹은 경희대학원을 수료하고, 동대문세무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조정위원을 거쳐 제조산업분야에 투신하여 서울 중랑구에서 환경산업인 용마산업(주)를 창립해 대표·회장으로써 새마을사업 및 동대문산업지역 발전에 공헌해, 정부로부터 다수의 표창



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동대문·중랑 종친회장·경교공과총회 장직을 다년간 맡으면서 종회 발전에 몰신양면으로 헌신했다. 지난 26일 3일장으로 많은 조문인이 참여해 가운데 영주시 선영에 안장했다. 유족으로서는 미망인 심순에 여사와 장남 한준씨(용마산업(주)대표)가 있다.